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우수자전형 대비 경기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



◆ 유의 사항

1.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답안을 작성할 것.
2. 제목은 쓰지 말고 첫 번째 칸부터 작성할 것.
3. 답안 작성과 수정은 반드시 흑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
(수험번호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4. 답안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5. 가급적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6.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
7. 아래의 경우는 '0'점 처리함.
 - 암호 표시나 낙서 또는 기타 불필요한 표기를 한 경우.
 - 1번 문항과 2번 문항 답안을 바꾸어 작성한 경우.
 - 흑색이 아닌 필기구 또는 연필로 작성한 경우.
(수험번호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 적색 펜이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우수자전형 대비 경기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

[문항 1] **가**의 관점에서 **다** <홍길동전>에 나타난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나** <홍길동전>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 가치를 ㉠의 측면에서 논술하시오.
(700 ± 50자)

가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솔윙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형 폴크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바퀴, 새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 나희덕, <풀 비린내에 대하여>, 『고등학교 문학』 —

나 고전은 시대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깨달음을 주는 글이다. 인류가 남긴 높은 수준의 지적, 정의적, 심미적 활동의 산물로서 고전은 인간과 세계의 발전에 긴요한 지혜를 담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고전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을 제공한다.** 또한 고전은 균형 잡힌 사고와 온전한 인격을 갖추 수 있는 교양을 형성하게 해 준다.

— 『고등학교 고전』 —

다 길동이 점점 자라서 여덟 살이 되니, 총명함이 보통 사람을 능가하여 하나를 들으면 백을 알았다. 공이 더욱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겼지만 근본이 천한지라,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면 곧 꾸짖어 못하게 하였다. 길동은 열 살이 넘도록 감히 아버지와 형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인들에게마저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하게 여겨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였다.

어느 가을 구월 보름날, 달빛은 밝게 비치고 맑은 바람은 쓸쓸하게 불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했다. 길동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며 말했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명을 본받지 못하면 차라리 병법을 외워, 대장군의 인장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과 서로 정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로서 흔쾌히 할 일이다. 나는 어찌하여 한 몸이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있건만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어찌 원통하지 아니 하리오!"

말을 마치고 뜰에 내려가서 검술을 공부하였다.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배회하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자지 아니 하느냐?"

길동이 공경하며 대답했다.

"소인이 마침 달빛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중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만,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으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공이 그 말뜻을 짐작했지만, 짐짓 책망하여 말했다.

"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길동이 거듭 절하고 말씀드렸다.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도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가 되었으니, 아버님이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신 은혜가 깊은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길동이 눈물을 흘려 적삼을 적셨다. 공이 다 듣고 나서 비록 길동이 불쌍하지만, 그 뜻을 위로 하면 마음이 방자해질 것을 염려하여 크게 꾸짖었다.

“재상 집안에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니거늘, 네 어찌 방자함이 이와 같으냐? 앞으로 이런 말을 또다시 하면 내 정녕 너를 눈앞에 두고 보지 않겠느니라.”

길동이 감히 한마디도 더 고하지 못하고 다만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 허균, <홍길동전>, 『고등학교 문학』 —

[문항 2] **가**의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나**, **다**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할지 논술하시오. (700 ± 50자)

가 공익 광고에 나왔던 인구 정책 표어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정책 변화를 알 수 있다. ‘뒹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는 전쟁 직후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이다.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 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0~80년대에도 역시 출산율을 억제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고도의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1970년에 4.53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2011년에는 1.24명으로 낮아졌다.

— 『고등학교 사회 문화』 —

나 사람들은 선택할 때 일정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을 선택하거나,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최대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이를 경제 원칙 혹은 효율성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제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항상 합리적 선택을 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 『고등학교 경제』 —

다 사람들은 종종 매물 비용 때문에 비합리적 선택을 한다. 매물 비용이란 지불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 이미 지불한 매물 비용은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선택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선택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들여 농작물을 키운 농부가 있다고 하자. 이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데 1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농작물값 폭락으로 시장에 모두 팔아도 단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실망한 농부는 농작물 수확을 아예 포기해 버렸다. 이 농부의 선택은 합리적일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농부의 선택은 비합리적이었다. 농부는 수확을 포기함으로써 5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 만약 농작물을 수확해서 팔았다면 손실이 4천만 원으로 줄었을 것이다.

— 『고등학교 경제』 —